

## 하나라는 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림

성경: 신 12:5, 8, 11, 13-14, 17-18, 21, 26-27, 시 48:2, 11-12, 80:17-19

- I. 신명기 12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를 지키기 위해,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계시한다 — 신 12:5-8, 11-14, 17-18, 21, 26-27, 14:22-23, 16:16, 비교 고전 10:6, 11, 롬 15:4.
- A.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자신들이 선택한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누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(신 12:8, 13, 17).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, 곧 그분의 이름과 처소와 제단이 있는 곳에서(5-6절) 그들의 십일조와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(12:5, 11, 14, 18, 21, 26-27, 14:22-23, 15:19-20, 16:16) 하나님께 경배해야 했다.
- B.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 선택하신 유일한 장소는 우리가 지방이라는 터 위에서 모이는 것을 상징한다. 지방이라는 터는 (예루살렘이 상징하는) 실행적인 한 몸의 표현을 위한 것이고, 또한 (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온이 상징하는) 실지적인 한 몸의 실재를 위한 것이다 — 시 48:2, 50:2, 계 1:11, 2:7.
- C.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관한 신약의 계시는 다음과 같이 신명기 12장에 있는 계시와 일치한다.
1.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여야 한다.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— 시 133편, 요 17:11, 21-23, 고전 1:10, 엡 4:3.
  2.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한 이름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함께 모여야 하는데, 이 이름의 실재는 그 영이다. 다른 어떤 이름을 갖는 것은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이며 분열되는 것이다. 이것은 영적인 음행이다 — 마 18:20, 고전 1:12, 12:3, 계 3:8.
  3. 신약에서 하나님의 처소 곧 그분의 거처는 특별히 우리의 연합된 영, 곧 신성한 영에 의해 거듭나고 신성한 영이 내주하시는 우리 사람의 영 안에 위치한다.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모든 것을 우리의 영 안에서 해야 한다 — 엡 2:22, 요 4:21-24, 고전 14:15.
  4.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생명을 거절하고, 그리스도,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, 제단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되게 적용해야 한다 — 시 43:4상, 마 16:24, 갈 2:20.

## 신명기

### 메시지 9 (계속)

5.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 선택하신 곳은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누림이 가득한 곳이고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다 — 신 12:7, 12, 18, 14:23, 엡 3:8, 빌 4:4, 고전 14:3, 4하, 26, 31.
- D.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 안에서, 우리의 영 안에서, 십자가와 함께 모여야 한다.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한다면 서로 다른 지방에서 모일지라도 같은 장소에서 모이는 것이다. 이 한 곳이 유일한 하나라는 터이다 — 신 12:5-6, 램 32:39.
1.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지리적으로 나누어져 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지방이라는 성경적인 터 위에서 전 세계에 걸쳐 서로 떨어져 있는 도시들에서 모이고 있기 때문이다. 지방이라는 성경적인 터는 한 도시에 한 교회를 갖는 실행, 즉 한 도시에는 오직 한 교회만 있는 실행이다 — 행 8:1, 13:1, 계 1:11.
  2. 우리 모두는 지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, 사실상 같은 곳에서, 곧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,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서, 십자가와 함께 모인다. 이것이 하나이며, 이것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기 위한 터이다.
    - a.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선호에 의해 분열되었다. 그러나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선호를 위해서는 안 되고, 반드시 주님의 임재, 곧 주님의 이름의 실재이신 실재의 영만을 위해야 한다 — 마 18:20, 고전 1:10, 출 33:14.
    - b. 신명기 12장에 있는 예표의 성취는 지리적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의 문제이다 — 요 4:21-24.
    - c. 교회의 입구에는 십자가가 있다. 따라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으려면 반드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, ‘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’(고후 10:5),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해 십자가를 체험해야 한다. 그럴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(eness)의 유일한 증거를 위해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실 것이다 — 마 16:24, 고전 2:2, 고후 10:3-5, 골 1:10, 18하, 3:10-11.
- II. 예루살렘이라는 유일한 터, 곧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건축된 시온산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터, 곧 하나라는 터를 예표한다 — 신 12:5, 대하 6:5-6, 스 1:2-3.
- A. 고대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 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였다.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바로 이 유일한 장소, 곧 예루살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가 수 세대 동안 지켜졌다 — 신 12:5, 16:16.

## 결정 연구 개요

### 메시지 9 (계속)

B.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라는 합당한 터는 ‘한 지방에 한 교회’의 유일한 터이다 — 계 1:11.

1. 교회는 우주적이신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땅 위에서 많은 지방들에 존재한다. 본성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우주적인 것이지만, 실행에 있어서 교회는 지방적인 것으로 ‘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’처럼 한정된 장소에 있다 — 고전 1:2.

a. ‘하나님의 교회’는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일 뿐 아니라, 교회가 하나님을 신성하고 보편적이며 우주적이고 영원한 본성과 본질로서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— 고전 1:2상.

b. ‘고린도에 있는’ 교회는 한 도시에 있는 교회, 곧 한정된 한 지방에 머물면서 그 지방을 그 교회의 입지와 터와 관할 지역으로 삼는 교회를 가리킨다. 이것은 교회가 물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지방적이며 시간상 일시적인 사무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— 고전 1:2하.

2. 우주적인 방면이 없으면 교회는 내용이 없게 되고, 지방적인 방면이 없으면 교회는 어떤 표현이나 실행도 가질 수 없다. 한 지방에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관한 기록은 신약 전체에 걸쳐 한결같다 — 행 8:1, 13:1, 14:23, 롬 16:1, 고전 1:2, 고후 8:1, 갈 1:2, 계 1:4, 11.

III. 하나라는 터 위에 있는 교회생활이 오늘날의 예루살렘이다. 교회생활 안에는 한 무리의 이기는 이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, 이러한 이기는 이들이 오늘날의 시온이다 — 시 48:2, 11-12.

A.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아름다운 곳인 시온은 교회의 고봉, 중심, 높여짐, 강화됨, 풍성함, 아름다움, 실재인 이기는 이들을 예표한다 — 시 20:2, 53:6상, 87:2.

B. 시온인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고,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몸의 건축을 완결하여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인 완결된 거룩한 성, 새 예루살렘, 지성소를 이끌어 온다 — 계 21:1-3, 16, 22.

C. 교회생활은 우리가 이기는 이가 되기 위한 적합한 곳이지만, 이것은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 있기만 하면 이기는 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. 교회생활 안에 있는 것과 이기는 이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— 계 2:7, 11, 17, 26-28, 3:5, 12, 20-21.

IV. 오늘날의 이기는 이들이 되려면,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람하고, 교회를 건축하며,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기 위해 하나라는 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— 마 16:18, 계 19:7.

## 신명기

### 메시지 9 (계속)

- A. 이스라엘 자손은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을 두 가지 방식으로 누릴 수 있었다.
1. 일반적이고도 개인적인 방식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람과도 그것을 일반적인 몫으로 누리는 것이었다 — 신 12:15.
  2. 특별하고도 단체적인 방식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정해진 명절에,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장소에서 최상의 몫인 첫 열매와 첫 새끼를 누리는 것이었다 — 신 12:5, 8, 11, 13-14, 17-18, 21, 26-27, 14:22-23, 15:19-20, 16:16-17.
- B. 마찬가지로,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도 두 방향으로 그리스도를 누린다.
1. 일반적이고 개인적인 방면은 언제,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할당해 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— 골 1:12, 고전 1:2, 9, 엡 6:18, 살전 5:16-18, 롬 10:12-13.
  2. 특별하고도 단체적인 방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인 하나라는 유일한 터 위에 있는 합당한 교회생활의 집회들 가운데에서 최상의 몫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— 고전 14:3, 4하, 26, 31.
- C.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작하는 생활, 곧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을 가질 필요가 있다.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하나님의 왕국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단체적으로 함께 그분을 누릴 수 있다 — 고전 3:16, 딤후 3:15, 롬 14:17-18.
1.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. 우리는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— 히 10:5-10, 빌 3:7-14, 4:5-8.
  2. 그리스도는 한량없이 풍성하시지만, 오늘날 교회가 빈곤 가운데 허덕이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이 나태하기 때문이다 — 잠 6:6-11, 24:30-34, 26:14, 마 25:26, 30, 비교 고전 15:58.
  3.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산물을 수확하여 교회 집회에 가지고 와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경작해야 한다. 이렇게 하면 집회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전람이 될 것이며, 성도들과 교회의 건축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, 또 하나님과 함께 참석자들이 공유하는, 그리스도에 대한 상호 누림이 될 것이다 — 골 2:6-7, 고전 1:9, 14:3, 31.
  4. 우리는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집회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. 우리는 반드시 두 손에 그리스도의 소산을 가득 담고 집회에 와야 한다 — 고전 14:26, 신 16:15-17.
  5. 우리는 함께 모여 우리가 경작한 그리스도, 곧 우리가 누리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람한다 — 신 14:22-23.

## 결정 연구 개요

### 메시지 9 (계속)

- V. 오늘날의 이기는 이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외의 다른 어떤 것도 높이 지 않고,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인 하나라는 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.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, 그리스도만을 높인다 — 골 1:18하, 계 2:4, 고후 4:5, 10:5.
- A. 이스라엘 자손은 좋은 땅의 풍성을 마음껏 누리기 전에, ‘높은 산과 언덕 위어나 무성한 모든 나무 아래에 있는’(신 12:2) 이교적인 경배 장소들, 우상들, 우상들의 이름들을 완전히 없애 버려야 했다. 높은 산들과 언덕들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높이는 것을 상징하고, 무성한 나무들은 이름답고 매력적인 것들을 상징한다 — 신 12:1-3, 5, 왕상 11:7-8, 12:26-31, 민 33:52.
- B. 하나님의 백성이 황폐하고 타락하게 되는 내재적인 원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높이 지 않기 때문이다. 그들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지위, 첫째 위치를 드리지 않는다 — 시 80:1, 3, 7, 15-19, 74:1.
- C. 황폐하게 된 데서 회복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. 하나라는 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감상하고 높일 때에만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다.